

“하반기부터 수출 증가 예상… 증시 연말까지 계단식 상승”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염 승 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경기선행 지표의 하락세
완만해지고 있는 상황”
“공포심에 주식 도망가지 말고
저점부근에서 주식 담아야”

‘염블리’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가 올해 국내 증시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는 ‘계단식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미국의 리쇼어링(국내 유턴) 등이 국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내 주식에 대한 분할 매수를 추천했다.

메트로신문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 100세플러스 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선 염 이사는 “경기선행 지표의 하락세가 완만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순환론적 사고로 접근했을 때 공포심에 주식을 팔고 도망가기 보다는 힘들더라도 저점부근에서 주식을 담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염 이사는 “한국 증시에서 코스피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저점일때 평균 0.84배 이상에서 움직이는데 이는 현재가로는 2294선”이라며 “최근 2400선을 유지중인 점을 고려했을 때 하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저점을 높여가는 계단식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대규모 금융 리스크 가능성은 낮아”

최근 SVB(실리콘밸리은행)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불안과 UBS은행의 CS(크레디트스위스) 인수 등 금융 안정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 포럼’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성 관리가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하지만 염 이사는 이번 일련의 상황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규모 금융 리스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염 이사는 “최근 SVB(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유럽 CS 유동성 위기 등 갑작스러운 신용리스크가 발생했지만, 곧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며 “금융 리스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8년과는 달리 미국 내에서도 부채 규모 조절이 이뤄지면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2008년 당시 미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에 육박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80% 미만에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금리인상 보다는 미세조정을 통한 금리 충격 완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기준금리가 5%까지 오르면서 소비자물가지수(CPI)까지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더 이상 인상에 나설 유인이 적다는 평가다.

염 이사는 “기준금리가 물가보다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 페달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 참석한 VIP들

지난 22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 참석한 VIP들이 포즈를 취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박창욱 은행연합회 전무, 이순우 메트로언론윤리실천위원회 위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장규 메트로신문 대표이사,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황정욱 저축은행중앙회 전무,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 임재택 한양증권 사장,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 /손진영 기자

을 세계 밍을 이유가 없다”라며 “물가가 꺾이는건 시간 문제이며 물가에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 리오프닝 나선 중국, 한국에는 호재

염 이사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국내 경기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염 이사는 “전인대(전국민대표회의)에서 예상보다 못미치는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리오프닝 효과가 적은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라며 “그러나 지난 2년간 부진했던 중국 내수와 부동산이 회복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경제에는 당연히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 내에서 위안화대출 증가, 도시주택 가격의 상승세 전환, PMI(구매자관리지수)의 개선 등 중국 경기 회복의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는 과하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리오프닝으로 인한 유통망 정상화로 글로벌 물가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염 이사는 “아직까지 중국 내 재고가

심각하게 쌓인 상황인데, 재고가 줄어 들지도 않았음에도 물가를 걱정하는 건 이른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세계의 도매시장 허브라고 불리는 ‘이우시’가 영업 정상화에 나선다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이 풀린다는 뜻”이라며 “물가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차전지·AI 테마 주목

미국이 리쇼어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2차전지, 인공지능(AI) 테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염 이사는 “리쇼어링을 통해 신흥국으로 나갔던 일자리를 미국으로 불러 중산층 일자리 제공, 경제 성장 등을 도모하려 한다”며 “태양광, 신재생, 리사이클, 전력망, 인공지능 등 투자가 이뤄지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은 크게 성장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영향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은 이미 크게 움직인 바 있으며, 챗GPT 등 장으로 인공지능 분야가 주목받아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붙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주주환원 확대가 국내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했다.

염 이사는 “한국 증시는 실적보다도 항상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며 “PBR(주가순자산비율)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주주환원이지만 국내 증시는 전 세계에서 꼴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주가까지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주주환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주주환원 강화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 이사는 “연기금은 국내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주환원으로 국내 주식이 상승하면 연기금 수익률은 자동으로 오를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배당제도 개선,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등 정책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연금수령·생애주기·투자수익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은퇴 준비와 재테크전략

김 동 엽
미래에셋투자자산연금센터 본부장

“확정기여형(DC) 통해 스스로
노후 자산 투자 고민할 수 있어”
퇴직 후 건보료가 올랐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해야”

“은퇴를 앞두고 퇴직금 수령 방식이나 퇴직급여제도 종류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연금수령 방법과 함께 생애주기, 투자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자산연금센터 본부장은 지난 22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은퇴부터 사망까지 자산을 관리하는 핵심 비법 7가지를 제시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자산연금센터 본부장은 ‘2023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은퇴부터 사망까지 자산을 관리하는 핵심 비법 7가지를 제시했다. /손진영 기자

김 본부장은 수 년 간 강의를 진행하며 받은 질문을 토대로 ▲퇴직급여 관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방법 ▲퇴직 후 건보료 ▲노령연금 수령 시기 ▲주택연금 ▲유족연금 ▲유언장 작성요령 등 자산관리 비법을 공유했

다.

우선 퇴직급여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퇴직금은 은퇴 전 직장에서 받은 임금에 따라 상이하며 회사가 직접 관리한다. 개인이 신경 쓸 필요 없이 수령만 하면 된다.

반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연봉의 12분의 1을 근로자의 퇴직계정에 적립한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다. 활용도에 따라 노후 자산관리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김 본부장은 퇴직금 수령시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과세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최종 퇴직금 수령 시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 시 중간정산 금액과 합쳐서 세금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퇴직금 통장도 다르다. 만 55세 이전 은퇴자는 반드시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를 통해 받지만 만 55세 이후 은퇴자의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계좌로 수령 받는 것도 가능하다.

김 본부장은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즉시 세금을 낸다”면서 “반면 IRP계좌는 연금수령 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지불 예정 세금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퇴직 후 건보료가 증가했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면 은퇴 전 지불하던 건강보험료를 3년간 더 지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령연금 또한 자신의 건강 상태, 자산포트폴리오 등에 맞춰야 한다. 수령 금액에만 집중하면 자칫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노령연금은 1년씩 앞당겨 받을수록 수령 금액의 6%가 감소한

다”면서 “최대 5년까지 조기 수령이 가능하지만 늦춰 받으면 1년에 지급액이 7.2% 증가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5년까지 수령 기간을 늦출 수 있다. 지급액만 놓고 보면 늦추는 게 정답이지만 건강상태에 따라 수령 시기를 정하는 게 낫다는 설명이다. 60세 남성 기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68.3%지만 90세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25.2%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유언장을 쓸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주소, 내용, 작성일, 날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혹여나 컴퓨터를 활용해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본문 또한 자산 증여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다면 토지, 건물 등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천을 해야 한다”며 “내일을 바꾸기 위해 오늘 배운 것들을 꼭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